

업체탐방

(주)디피아이홀딩스
기술연구소

이주길 연구소장

'나의 조국을 위한' 창업정신으로
'세계 일류 도로 생산메카'를 향하여

(주)디피아이홀딩스(회장 한영재)는 도로관련 1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최고의 제품으로 의리와 신화를 지키고 비록을 지닌 기업'으로 초연(超然)히 수준 높은 기업정신을 이룩한 곳이다.

이 회사의 대표적 상표인 '노루페인트'는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는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1945년 해방 직후 창업자이신 故 한정대 회장님은 약관 25세의 나이에 '나의 조국을 위하여'라는 창업정신으로 우리나라 대표 잉크회사인 '대한올셋잉크제조공사'로 출발하여 모태가 되었으며, 1950년대 창업주께서 남을 해치지 않고 만인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평화롭게 살아가는 노루에서 기업의 나아갈 바를 정하고 '노루'를 상징으로 삼아 왔으며, 이후 '노루페인트'로 잘 알려져 왔다.

금년 11월로 창립 64주년을 맞이하는 노루그룹은 그동안 여러 사업 분야를 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감정과 연계된 사업으로 그 중 색채와 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역점을 두고 있었다.

그 대표적으로 해방직후 64년 동안 이어온 페인트, 잉크 분야는 대한민국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5년 조선은행권 발행, 국정교과서, 관공서 인쇄물에도 대한잉크가 사용되었으며, 1957년 미연방규격 도로 생산, 1964년 도로업계 처음으로 발명특허 획득, 1986년 국내 최초 질연마니쉬 국산화와 미국 안전규격 통과, 1995년 중국 자금성 보수도장 페인트 공급 등 대한민국 잉크 산업의 산증인이라는 위치를 넘어 이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공인받고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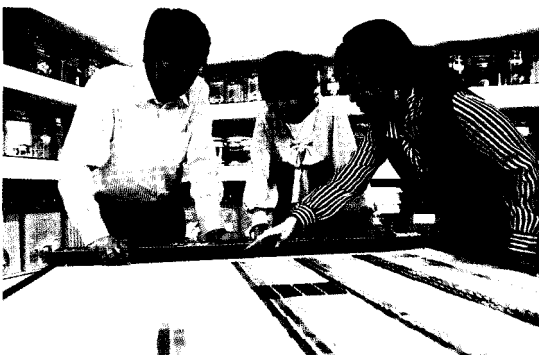
오늘은 디피아이홀딩스의 여러 계열사 중에서 그룹의 미래시장 가치창조를 만드는 숨겨진 조직인 기술연구소(연구소장 이주길)를 방문해 보았다.

이 연구소에서는 개발·연구되는 대상 제품들이 친환경성, 고기능성 분야 등을 골고루 만족

하여야 만 되지만, 그 외에도 타 연구·개발 분야와 다른 특징이라면 사람의 감성에 무척 민감한 갈라를 다루는 특수성으로 외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한 혁신이 부족 많이 필요한 곳이다.

1985년 11월에 설립된 이 연구소는 현재 연구소장 이주길 상무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연구원들이 주축이 되어 각 프로젝트별 담당 연구개발실과 첨단 분석연구실, 대외협력과 연구기획/지원을 담당하는 연구기획실로 전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필자가 이곳에서 만난 이주길 연구소장님은 동네 아저씨처럼 친근한 얼굴에 구수한 지방사투리까지 섞여서인지 말씀은 부담이 없으신 듯하지만, 사진 찍기는 극구 사양하셔서 겨우 증명사진 한 장만 받을 수가 있었다. 또한 연구소를 탐방하면서 여러 연구원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골소년 같은 소박한 감정의 소장님 영향 때문에서 인지 모든 연구원들이 수줍어하는 느낌을 필자는 받았다.



기업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가능한 실패의 위험을 줄이면서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 개발 방안을 찾고 고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민을 이 연구소는 새로운 개념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부 세계에서 자극적인 아이디어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혁신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C&D(Connect and Develop)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연구소의 성과를 보면, 1994년 국내 최초 비오염성 수성도료 국산신기술 인정, 1998년 내화도로 개발 및 내화구조지정 획득, 1999년 도료업계 최초 유·무기 복합 금속표면 피복재의 미국 특허 획득, 2000년 국내 최초 전착도로 설계 미국특허 2건 등을 토대로, 현재 환경 친화형 건축용, 기능성 도료 및 신전화 방식의 바닥재를 개발하였으며, 최근 선박용 신제품 개발 효과로서 선박제조 프로세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대 된다.

이 외에도, 자동차 Body, 플라스틱 도료의 수성화 및 트렌드에 맞는 신개념 전착도료를 개발 중이며, 공업용 표면처리제는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 아시아 지역을 포함하여 일본 업체 등에 로드쇼를 통한 제품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 연구소의 특징으로 기술은 지식만이 아니라며, 핵심연구원들의 자기개발과 연구 환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첨단 분석·실험 장비, 문헌자료 및 새로운 정보들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함으로써 이 회사만의 핵심 기술들이 다수 포함된 200여건의 국내·외 특허 등록과 눈에 띄게 성장하는 연구인력들이 늘고 있는 모든 것이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주길 소장은 '앞으로 연구소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문제는 인재양성과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이라고 말하며, 이에 맞추어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해외연수 및 학위 취득 지



〈 제 6기('07.11~'08.3) 기술대학원 수료자와 함께 〉

원과 사내 기술대학원 운영을 예를 들어 주었다. 이 중 기술대학원은 2002년부터 '정예요원 양성'을 목적으로 5개월간 집중교육 및 평가로서

년간 15~20명 내외를 선발 양성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아이템 발굴을 위하여 대학이나 관련 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선진국 기술자 교류 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었다. 지금까지 타사와의 차별화된 능력 배양을 위하여 관련 업체, 원재료 제공회사 및 일본, 유럽의 주요 거래기업과의 사내외 교육시스템 활용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체계는 계속적으로 마련될 것이라 말하였다.



디피아이홀딩스 기술연구소는 "일류 기술과 제품·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 일류 기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핵심적 내부역량 강화와 혁신적 외부협력 증대로 연구개발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들이 선호하고 직원이 만족하는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기 위한 꾸준한 연구개발과 혁신으로 변화를 꿈꾸며, 세계시장을 향해 더욱 높이 뛰는 '노루 NOROO'의 선전이 기대된다.



| 기술표준 2009.11